



湖南新聞



1946년 3월 창간 제 2322호

이메일 : ihonam@naver.com

홈페이지

NAVER

호남신문

검색

2017년 7월 27일 (음력 6월 5일) 목요일

여수시가 외면한 민원, 법원이 수용했다

주민들, 건설현장 소음·진동 등 피해로 고통...시, 대응 소극적 반발 사 민원인, 공동주택 건설 공사금지 가처분 '승소'...부실행정에 경종 울려

여수시가 외면한 민원을 법원이 수용했다. 여수시가 공동주택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피해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공사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 지난 13일 승소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여수시 부실행정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수시에 따르면 2016년 8월에 관문동8-9 일원(구 KBS방송국)에 아파트 5개 동(286세대, 지상 18층(최고), 지하 2층) 및

부대복지시설 신축공사를 승인했다. 이렇게 승인 받은 골드종합건설(주)은 그해 10월에 아파트 지하 터파기 및 압박과 작업을 진행하면서 인근 주택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민원이 쇄도했다. 이에 일부(80세대 중 60세대 가량) 인근 주민들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업주체측인 골드종합건설과 피해보상 협의를 진행, 최근에 보상을 마무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터무니없이 적은 돈으로 입막음

하려고 한다며, 일부 주민들은 대책위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들 중 한명이 압박과에 따른 막대한 피해를 참지 못하고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 '공사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3일 순천지원 제4민사부(재판장 강성훈)는 "위 아파트 건설공사 중 지반굴착공사를 중지하고, 무진동공법 등으로 적절한 설계변경을 거치거나, 감정인으로부터 관문동 632-8 지상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주택과 부속건물인 창고에 발

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측정 받고 그 결과에 따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서는 위 공사를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다. 이렇게 공사금지가처분에 대해 법원이 받아들인 것에 대해 민원인 A씨는 "여수시가 압박과에 따른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시민을 무시하고,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지 않아 개인적으로 소송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수차례 여수시에 민원을 제기, 담당 공무원이 피해 현장도 방문했지만, 행정처분(공사중지 명령 등)을 하지 않아, 법원의 판결을 받아 공사가 중지된 상태"라고 여수시행정에 불만을 토론했다. 특히 A씨는 "건설사가 비대위에 보상한 금액은 피해 복구에도 못 미치는 소액으로 공사현장 바로 옆에서 생활하고 있는 주민들의 소음·진동 피해와 건축물 안전성에 따른 정신적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보상비로는 황당하기 그지없다"고 흥분했다. 이에 대해 공사 관계자는 "비대위 소속 주민들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지급했으며, 비대위에 가입하지 않은 주민들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보상을 지급할 의향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관계자는 "비대위와 협약한 보상비를 제외한 그 어떠한 추가 보상비는 없을 것"이라고 개별적으로 추가 보상비는 지급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여수시 관계자는 "민원인을 포함한 인근 주민들과 건설사, 시청 관계자들이 간담회를 갖는 등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서로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서 민원을 해결하지 못하고, 민원인이 법원에 공사금지가처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계속되는 민원제기에도 여수시가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는 동안 건설사가 압박과 공사를 강행하면서 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약 8만㎡ 중 64000㎡(80%)가량의 압박과가 진행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심에 물 분사하는 소방 광주와 전남 지역에 연일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후 광주 북구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 앞에서 광주소방본부 대원들이 도심 온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뿌리고 있다.

Photo漫評

사고뭉치?

국민의당 이연주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 파업 노동자와 학교급식 노동자 비하 발언으로 충격을 치른 데 이어 27일에는 '일본(아르바이트)를 때려도 고발하지 않는 것이 공동체 정신'이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다시 한번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 회의에서 "노동자를 때려도 고발하지 않는 게 이었다"며 "장장이 살아야 노는 건데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한 비난이 빗발쳤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노동자에게 임금은 생명인데, 억지시키도 안되나요?"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연주의원은 국회의원 세비를 못 받아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고수하겠군요"라며 "월급 주는 국민에게 대드는 것은 공동체 의의 결여라고 봐야 하나요"라고 했다. 관련 인사들의 속세를 상상해 본다.

조인호 기자 · 자료 사진=뉴시스



남도 곳곳 여름축제...장흥물축제 스타트

남도의 맛과 멋, 흥에 취해 무더운 여름을 잊게 할 여름축제가 전남 곳곳에서 열린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28일 정남진 장흥물축제 개막을 시작으로 29일 강진청지축제와 고흥우주항공축제, 8월 12일 무

안연꽃축제가 개막해 일상에 지친 여름 휴가객에게 다채로운 즐거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전남도는 제각기 특색이 있는 주제로 풍성한 프로그램을 구성해 축제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정남진 장흥물축제에서는 살수대첩 거리퍼레이드와 지상 최대의 불싸움을, 고흥우주항공축제에서는 축제 기간에만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나로호 발사현장 체험을 즐길 수 있다. 강진청지축제에서는 고려청자 제작 체험 및 정자경매쇼를, 무안연꽃축제에서는 100m 연가래떡 나눔 잔치와 한여름의 크리스마스 등 무더위를 식힐 이색적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전남도는 축제 안내 홍보물을 공동 제작하고 전국 관광안내소, 고속도로 휴게소, 기차역, 터미널 등에 배부해 여름 축제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정순주 전남도 관광문화체육국장은 "남도 여름축제에서 전남의 자연, 음식도 함께 즐기면서 더위에 지친 몸과 마음의 활력을 되찾아갈 바란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노사가 함께 만들어 가는 활기찬 산업현장!

노·사 갈등을 넘어 상생할수 있는 전남노사민정 사적 조정제도가 있습니다

▶ 노·사, 노·노 간에 갈등이 있나요?

- 전라남도 노사갈등 조정해결실무위원회가 있습니다.
- 노·사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지원에 드립니다.
- 임금, 퇴직금, 해고, 산재 단체교섭 노조활동, 노동문제로 에로사항이 있는 개인이나 기업, 노동조합등 누구든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신청 및 상담전화 062) 524-9666

전라남도노사민정협의회 · 전라남도 노사갈등조정해결실무위원회

